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느때보다 국민의 정치참여가 비할 대 없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정치의식도 상당히 고양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때문에 국민의 행복과 평화에 진력(盡力)하는 소임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가에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짓는 업을 공업(共業)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로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이야말로 이만한 공업이 없으며, 일대사 커다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불교를 대할 때의 마음이 흐려지고 줄어들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격려를 합니다. 수행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의 마음에는 동기가 명확하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발심(初發心)의 지혜로 오늘날의 안개를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국민과 늘 함께한다면 초심을 지키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공업의 인연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헌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시는 일 원만성취(圓滿成就)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불기2556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